할수록 좋은 주기도

(마태복음 6장 5절~9절)

5.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할수록 좋은 주기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할수록 좋은 주기도'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2000년 전에 가르쳐주신 기도이지만 지금 현재도 변함없이 기도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기도야말로 성경 중에 으뜸이 되는 기적이 아닐까 합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면 주기도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의 기적을 활용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복지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차례에 거쳐 주기도 강해를 해왔습니다. 다시 주기도 강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기도를 실천하고 계십니까? 주기도를 통해 기도하시면서 느끼시거나 달라지신 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기도를 두 가지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할수록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할수록 능력인 기도입니다. 주기도를 생활화할수록 점점 더 좋아집니다. 좋음 그 자체입니다. 또 주기도가 익숙해질수록 하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늘의 능력은 세상에서 유명해지거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의 모든 일이 하

늘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음을 관찰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히 말해 저절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 강해를 돌이켜보면 주기도를 이해하고 나의 기도로 삼기 위한 열쇠는 바로 십자가를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쉬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과 상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아야 할 사건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당연히 기도를 가르쳐주실 때에는 십자가를 염두에 두셨으리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힘을 쏟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무한정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선택해야만 합니다. 성경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주기도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신학적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만나고 많이 가지는 것이 하나님 부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삶의 길입니다.
주기도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갖게 해주고 우리 몸으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뜻을 이 땅에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삶 전체를 하나님 부자로 만들어갑니다.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로 부자가 되고, 몸은 하늘에서 결정된 뜻을 땅에 열매 맺게 하는 비결이 바로 주기도를 통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예로써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사도들을 비롯한 신앙의 선진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삼국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시작되었으니 훨씬 더 고대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당시에는 성경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몰랐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릅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후의 선민들 중에서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인물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모두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성경에 기록은 되었지만 성경을 몰랐던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예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열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뒤에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생각조차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어지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는 신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심을 알아도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인 아버지로 만나게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주기도의 내용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좋음이 가득해지고 삶은 공짜로 살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에 걸쳐 주기도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할수록 좋은 기도로써의 주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할수록 능력인 주기도입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기준이 본문 9절에 제시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해서는 안 되는 일이 두 가지 있음을 전제로 삼아 참 기도를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기도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세속적 가치에 매달립니다. 건강하기를 바라고 자녀가 형통하기를 바라고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채로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않기 위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언급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도 모르기에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신에게 기도를 하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들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고 계획하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 소원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쓰고 버는 돈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A4용지 위에 내 생각을 타자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분명치 못한 이유도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내 생각을 덧입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언부언이란 안 해도 될 이야기입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일에 내 생각을 가져다 붙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돈에 대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궁핍함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며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도 내가 해야 될 일은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로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도 알 수 없는 나의 몸의 구석구석까지 모르는 부분이 없습니다. 내 건강의 길은 하나님의 계획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는 기도를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구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만으로도 가슴이 벅찹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실제 존재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 땅에 있는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시공을 초월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가지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사이에서 발생했던 기쁨의 일체 되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위대한 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고 성스러운 장소이기에 지성소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은 비어있기 때문에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기쁨과 만족을 위한 대상의 이름이 담기는 부분이 마음의 지성소입니다.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 이름을 상징하는 법궤만이 존재했듯이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만이 담기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나로 인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실 때에 이 거룩함에 대한 언급을 우선적으로 하신 것일까요? 삶은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작 기도는 하늘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는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분명히 아시고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를 들어 건강 때문에 기도하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라. 네가 건강을 구하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

이다. 내가 네 건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너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나의 계획이 있다. 그동안 네가 건강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에 아랑곳하지 않고 네 멋대로 산 결과이다. 내게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이제 너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에 대해 전념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돈 문제에 대해서도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면할수록 우리의 삶의 문제는 더욱 혼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써놓으신 계획 위에 내 생각을 덮어 쓰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삶을 모르셔서 하늘을 향하는 기도를 우선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져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하늘을 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직장 문제가 생긴 이유도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직장을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직장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죽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이름들을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배우자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문제 등 모든 이름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마치 옛날에 이를 잡듯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이름의 이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이름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을 때까지 이러한 기도를 반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됩니다.

돈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예수님을 무안하게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처럼 세상을 우선시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죄의 뿌리를 알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은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들어온 것이 곧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라는 이름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자녀가 잘되는 것이 나에게 기쁨과 만족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이자 죄악의 뿌리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의 이름을 붙잡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마음에서 기쁨과 만족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음란함은 모든 행동으로 짓는 죄의 뿌리가 됩니다. 이러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곧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도 상통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둔다는 것은 곧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이름들을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자리에 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6장 전체는 주기도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돈이라는 신의 이름을 마음에 담는 이유는 돈을 행복의 필수조건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음행과 죄악의 뿌리를 가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함으로써 마음에서 다른 이름에 대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잡듯이 세상의 이름을 죽여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이름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마음에 다른 신을 품는 것이야 말로 죄악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한 세 번째 단계는 하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돈이 없든 가족에게 문제가 있든 그것은 실제로 내가 신경 써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신경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문제라고 여겨지는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일들에 대해 말이 많을수록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그동안 마음에 하나님 외의 다른 이름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붙잡는 것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재물을 섬기는 마음에서는 돈이라는 이름을 붙잡습니다. 돈이 있어야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제 돈을 손에 넣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다니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에서 주인으로 모신 대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기쁨과 만족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게 됩니다. 문제가 산처럼 쌓여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이외에 대해서 다 죽고 나면 실제 하나님을 갖기 위해서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만족할 길이 없음을 고백하는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입

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이 기쁨이고 만족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을 목말라하는 사랑을 표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돈이나 건강에 대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형통과 승진 같은 세상적인 형통에 대해서만 갈증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갈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로소 복음은 의미와 효과를 갖습니다. 복음이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동선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데려가주세요. 지금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계시듯이, 제 마음을 데리고 가셔서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로 가득 찬 것처럼 저도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진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따라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까지 주님을 따라 오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땅으로 끌어내려서 돈 많은 지점으로 가고 싶어 하고 건강과 승진과 자녀의 형통이라는 지점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동안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의 동선은 제외되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따라야 할 길이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세상에서 소원하는 지점으로 가기 위해 오히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고 싶어 하는 지점에 무사히 가게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기도생활을 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창고 안에서 먼지를 뒤집어쓴 채 묵혀있었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늘과 연결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9절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구절은 비록 짧지만 이어지는 모든 부분과 대칭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까지 두 번째 부분이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것이고, 9절은 외식하지 않는 자들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첫 번째 기도가 '할수록 내 마음이 좋아지는 기도'로서의 주기도를 가능케 해줍니다. 다음 주에는 '할수록 능력인 주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할수록 내 마음이 좋아지는 기도'를 경험하심을 통해 다음 주에는 '할수록 능력인 기도'에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공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다양한 문제가 있더라도 가장 합당한 대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 속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의 이름들이 죽고 사라짐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좋으심이 날마다 쌓여서 하나님의 갑부들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